

“진짜 부처님 가르침 들으러 가요”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초청강연·대화의 장으로 군포교 앞장

희망법당 탐방
맹호부대 호국연호사

장병들에게 군법당은 고된 몸을 재워주고 고된 배를 채워주는 곳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불교교리 강의는 자장가로 들리며, 단잠을 자고나면 먹을거리를 주니 말이다. 군포교사들은 군포교 환경이 열악해 잡이라도 자게 두고, 간식이라도 손에 쥐어줘야 잠적적인 미래의 거사불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스님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초청해 장병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면 어떨까. 경기도 가평 맹호부대 호국연호사(주지 무상)가 그런 곳이다.

정도희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영화배우 김여진, 방송작가 노희경씨 등이 호국연호사를 다녀갔다. 유명인의 강연을 들으며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나눈 장병들은 어느새 진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고 있었다.

“제가 처음 이곳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을 때 법당은 무척 쓸쓸했습니다. 20~30명이 모여 앉아 법회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법당에 가면 재미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연예인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내뱃속에 알려지면서 많은 장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법당은 초코파이나 떡으로 가는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러 가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11월 7일 ‘노희경이 들려주는 연애, 가족, 봉사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한 대화마당에 참가한 정대기 상병의 소감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로 이름을 알린 노희경 작가는 이날 자신이 20대 시절에 겪었던 방향과 고민을 들려주며 군장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었다. 안개가 낀 스산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병사들은 군법당을 가득 메워 노희경 작가의 강연을 경청하며 훈훈한 열기를 채웠다.

유명한 초청강연으로 군불자 증가

호국연호사는 1976년 부여단장 관사를 보수해 법당을 마련했다. 1977년에는 신축법당을 완공했고, 역대 군법사들의 뜻과 정성을 보태 2003년 범방 정운성 법사의 불사 중창으로 현재의 108평 규모의 대웅전을 갖게 됐다. 대웅전 외에도 병사식당, 요사채를 갖춰 여타 군법당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250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의 대웅전을 갖고 있는 군법당임에도 불구하고 호국연호사에는 올 초까지 30여명의 병사들만이 법회에 참여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법륜 스님을 초청해 장병들과 함께 즉문즉설 법회를 시작했다. 이어 김여진, 노희경씨의 강연이 마련되면서 현재는 평균 130명의 장병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청강연을 준비한 군종법 이준길 병장은 “병사들을



호국연호사는 11월 7일 방송작가 노희경(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씨를 초청, ‘노희경이 들려주는 연애, 가족, 봉사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마당을 열었다. 행사 후 노씨와 군장병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위해 다양한 주제로 여러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니 법당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법회 시간은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생활이 어려가지로 힘들었지만, 내가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지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륜 스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생활이 행복합니다.”(백창현 일병)

이렇듯 초청강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으며 병사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병장은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에서 질문한 병사의 군생활이 180도 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입대 전 6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 부대 일과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병사가 스님의 답변을 듣고 열심히 부대 생활에 임하게 되면서 여단장님의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귀띔했다.

‘마음나누기’ 사단본부에서도 관심

호국연호사는 지난 8월부터는 각 대대별로 모여앉아 군종병의 안내로 ‘마음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마음나누기는 법회 후 소감과 일주일 동안의 내부생활 중 느꼈던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다.

이 병장은 “요즘 선임이 갈구어서 힘들다, 말 안 듣는 후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내일 훈련인데 걱정된다 등 병사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서로에게 공감의 장이 되고, 힘든 군생활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해소의 장이 되고 있다”며 “사단본부의 간부들이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영상매체를 접하며 자란 세대다. 호국연호사는 법상에 앉아 법문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병사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 5월부터 포교영상물을 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8분짜리 ‘부처님의 일생’을 CG영상으로 제작했으며, 7월에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녹화해 100분짜리 DVD ‘행복한 군생활을 위한 마음수행법’으로 만들었다. 이밖에 3D캐릭터를 활용해 ‘법당 기초예절 안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장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영상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길 병장은 “법륜 스님의 DVD는 군수련회를 통해 보급했는데 군법사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현재는 ‘수계의 의미’를 병사들에게 안내해주는 10분짜리 CG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상물 제작은 병사 개인 역량의 의지에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병장은 “12월에는 불사 독후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도서 5가지를 정해 병사들에게 읽게 하고 독후감을 써낸 병사들에게 포상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 중”이라며 “불사를 지원해준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연호사 주지 무상 스님은 “병사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법회와 프로그램 등 감동이 있는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군대에서 경험한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이들을 평생 불교와 인연 맺어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다. 군법당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너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50살 주부입니다. 총동구매를 막을 길이 없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3남 1녀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는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큰오빠가 무서워 집안에서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혼 후부터 남편과 싸우고 나면 총동구매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구매를 하고서도 무엇을 샀는지도 모릅니다.

A 계약적으로 지내는 것이 많이 불안하지요. 채용공고가 뜰 때마다 떨리기도 하구요. 이왕이면 정규직이 돼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장단이 있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기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인디언의 기도는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이지요.

A 어린 시절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무척 힘들어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오빠가 무서워서 집안에서도 도망을 다닐 정도였다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를 채울 기회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새로운 버릇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오순도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불만과 실망감을 다른

자신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자신의 자원이 돼 어디서든지 쓰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마음에는 밝은 기운이

부부싸움 후 총동구매 뭘 샀는지도 모릅니다 범종을 왜 33번 치나요?...지옥중생 고통 소멸

방법으로 해소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뒤로 미루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며 따뜻한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에 대해 생각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지요. 어릴 때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지금 내 아이들에게 쏟으면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지금 일자리가 좋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오기까지는 해고와 구직을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일하는 곳에 계약적으로 채용은 됐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나에게 대한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올해 재채용이 됐는데, 매년 공채 기간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올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편안하게 일하고 믿음을 갖게 될까요?

함께 한다고 합니다.

Q 불교에서 범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불공 30분 전에 33번을 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외에 종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33번을 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범당에 있는 작은 종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A 범(梵)이란 우주만물이며 진리란 뜻입니다. 범종은 절의 종류에 걸려놓는 것으로 절에서 아침, 저녁 예배, 큰 의식이 행사 때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때를 알리기 위해서 치니다. 종소리로 지하의 모든 지옥 중생에게까지 불법을 들려줘 고통을 소멸시키고,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 치니다. 이 종이 울리면 예불을 올리는 시간으로 지옥고통을 잠시라도 쉬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을 28번 치는 것은 마하가섭부터 육조혜능까지 28대 조사를 의미하고, 저녁에 33번 치는 것은 천상의 세계가 33천이기 때문입니다. 법당 안에 작은 종은 예불이나 의식 중간에 사용합니다.

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한,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평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전형 클릭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g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상차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